

**11월 11일(월) / 로마서 7-9장**

▶내용요약: 7장은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성도들이 지닌 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역설한다. 9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난 의에 근거하므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질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 )이라”(8장)

▶생각하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가?

**11월 14일(목) /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요약: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피할 것을 권하고자 하는 바울의 글이다. 1장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바로잡는다. 2장은 바울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함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전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참된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장은 교회 내 분쟁이 지도자를 따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함으로써 거룩함을 추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한다.

▶질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1장)

▶생각하기: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가?

**11월 17일(일) / 고린도전서 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광야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심판을 받았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음행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 11장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하면서 공적인 예배 시에 남자는 머리에 아무 것도 쓰지 말

**11월 12일(화) / 로마서 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진정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였을 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한다. 11장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으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오만하지 말고 믿음을 두려움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전한다. 12장은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사랑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질문: “사람이 ( )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 )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10장)

▶생각하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애와 사랑으로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11월 15일(금) / 고린도전서 4-6장**

▶내용요약: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권면으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한다. 5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음행과 패륜적 사건을 질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물론 패역한 일을 자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단호히 추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 6장은 성들 간 소송의 문제에 직면하여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윤리 도덕적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성령의 전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으므로 더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권면한다.

▶질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인줄 알지 못하느냐”(6장)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야 하나 여자는 긴 머리가 없는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가르친다. 이어 교회 내 모임에서 먹고 마실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므로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함으로써 교회 내 성만찬을 제정한다. 12장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은사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며 다양한 은사가 교회 내에 있으며 은사는 성령이 그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으로써 그리스

**11월 13일(수) / 로마서 13-16장**

▶내용요약: 13장은 바울은 세상 권세와 납세 등 국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권면하며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에 있음을 말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대비한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권면한다. 14장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리기하는 일을 두지 않음으로써 덕을 세우라고 함으로써 실천적 성도의 삶을 권면한다. 15장은 성도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이어 로마로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전한다. 16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사역의 조력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더불어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한 후 송영과 축복 기도로 마무리한다.

▶질문: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15장)

▶생각하기: 위협적인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바울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11월 16일(토) / 고린도전서 7-9장**

▶내용요약: 7장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할 것을 권면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여 결혼을 신성하게 여길 것을 원론적으로 교훈하면서 독신의 문제와 과부의 재혼 문제, 처녀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 등에 관하여 권면한다. 8장은 우상의 제물을 섭취하는 일에 관하여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연약한 믿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우상의 제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9장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타인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였다고 간증함으로써 하늘의 상을 기억하고 달음질 할 것을 권면한다.

▶질문:“내가 ( )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 )에 참여하고자 함이라”(9장)

▶생각하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능이며 이는 성도 간 서로 간 돌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질문: “예수께서...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이 잔은 내 피로 세운 ( )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11장)

▶생각하기: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